

# 칼라놓힘분에 따른 칼라 및 라펠의 특성 연구 -테일러드 칼라 재킷을 중심으로-

이 소 영<sup>†</sup>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전공

## A Study on the Character of Collar and Lapels According to Collar Laying Amount -Focused on Tailored Jacket-

So-Young Lee<sup>†</sup>

Dept. of Apparel Design, Konkuk University

접수일(2010년 8월 17일), 수정일(1차 : 2010년 12월 23일, 완료일 : 2011년 1월 21일), 게재확정일(2011년 2월 8일)

###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proper collar laying amount to be actively used in the clothing industry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collar and other related components according to the collar laying amount.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llar laying amount (2cm, 2.5cm, 3cm, 3.5cm, 4cm, and 4.5cm) after making 6 tailored jacke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best shape of collar and lapel appeared when the collar laying amount was 3cm and 3.5cm. 2. Depending on the collar laying amount, the shape of collar, roll line form of collar and lapel, collar width, collar stand, the position and width of roll line changed. As the collar laying amount increased, the length of collar edge became longer, and the collar stand decreased. In case the collar laying amount was small (2cm, 2.5cm), the width of collar and lapel became narrower. On the contrary, when it is large (4cm, 4.5cm), the width of collar and lapel became wider. 3. Collar laying amount as well as the length of the neck line of collar affected the shape of the collar roll line around the neck.

**Key words:** Tailored collar, Tailored jacket, Collar laying amount, Collar roll line, Lapel roll line; 테일러드 칼라, 테일러드 재킷, 칼라놓힘분, 칼라귀임선, 라펠귀임선

### I. 서 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복 재킷이 의복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요구수준과 관심도 높아져 의복의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재킷은 착용 방법에 따라 정장이나 캐주얼로도 활

용될 수 있어 소매나 칼라 등의 부분에 패션성을 가미시킨 다양한 스타일의 재킷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복 재킷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복 재킷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현식(2004)은 업체의 재킷 패턴을 선정하여 평가 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20대 여성용 연구패턴을 제시하였으며, 강연경(2009)은 중국 성인여성용 테일러드 수트 패턴을 개발하였다. 그 외에 비만여성용 재킷 패턴의 개발(김인화, 2002), 노년여성의 재킷 패턴 개발(배주형, 2006; 이미성, 2007; 이수진, 2009), 소재에 따른

<sup>†</sup>Corresponding author  
E-mail: so8404@daum.net

재킷 패턴 연구(김명옥, 2006; 장세은, 2007; 최창숙, 2008) 등이 있다. 기타 재킷의 이미지나 선호도에 관한 연구(류숙희, 박종희, 2004; 이보나, 2005)나 마킹(이미숙 외, 2006), 그레이딩(전은정, 2004), 기성복 치수(조윤주 외, 2004) 등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용 재킷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여유분이나 체형, 소재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킷의 칼라에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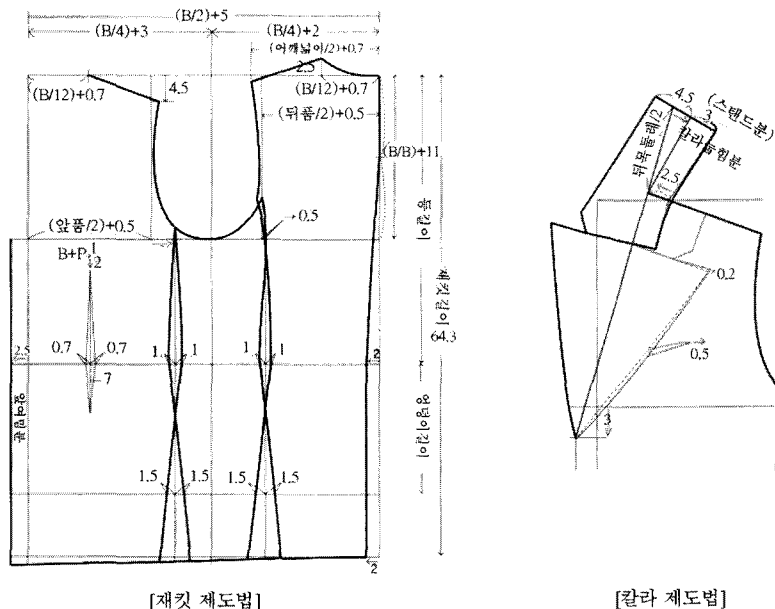
테일러드 칼라 관련 연구로, 임자영(2005)은 칼라의 눌힘각도와 칼라폭에 따른 칼라외곽치수와 스텐드분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나 칼라외곽치수와 스텐드분의 수치 변화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김구영, 김여숙(2008)은 여성복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제작요인을 연구하여 수정 보완한 테일러드 재킷 칼라 패턴을 제시하였으나, 칼라눌힘분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안화노(2008)는 테일러드 칼라 패턴 연구를 위해 기성복업체 원형 3종을 선정하여 착의실험을 통해 수정 및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원형을 개발하였다. 칼라눌힘분 뿐 아니라 고지라인의 위치 등 심미적인 면도 종합적으로 연구하였으나, 칼라눌힘분 변화에 따른 목둘레 형상이나 외곽선 변화, 기타 요소 등에 관한 상세한 관찰이나 수치적 변화 등 세부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테일러드 칼라는 재킷의 중요 요소로서 큰 부분을 차

지하고 있으며, 칼라너비, 스텐드분, 칼라눌힘분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칼라의 전체적 형태 및 디자인에 영향을 미친다. 그 외 라펠귀임점의 위치, 원단의 부피나 디자인 등도 테일러드 칼라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고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하는 디자인의 스텐드분이나 칼라너비의 테일러드 칼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칼라눌힘분 설정이 필수적이나 현재 테일러드 칼라의 칼라눌힘분에 중점을 둔 구체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칼라눌힘분을 달리한 테일러드 재킷을 대상으로 칼라눌힘분 변화에 따른 칼라 및 기타 관련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외관상으로 보기 좋은 칼라눌힘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테일러드 칼라 패턴 제작법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칼라눌힘분을 달리한 총 6종의 테일러드 칼라 실험복 재킷을 대상으로 칼라 및 라펠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칼라너비, 스텐드분, 라펠귀임점, 원단 등을 동일하게 유지시킨 채, 칼라의 눌힘분만 변화시켜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측정용구는 마틴식 인체계측기와 방안자 등이었다.



<그림 1> 연구에 사용된 재킷 및 칼라의 제도법

<표 1> 제도에 이용된 드레스폼의 각 항목별 치수

(단위: cm)

항 목	둘 레			길 이		폼		너 비
	가슴둘레	허리둘레	영덩이둘레	등길이	영덩이길이	앞 폼	뒤 폼	어깨너비
길 이	87.0	62.0	89.0	39.0	18.0	32.0	33.0	34.5

1. 실험복 재킷의 제도

연구에 사용된 실험복 재킷은 칼라눙힘분을 달리 한 테일러드 칼라 재킷 6종류로, <그림 1>과 같이 김효숙(2000)의 테일러드 재킷 제도법으로 제도하였다. 기본형 8호 드레스폼의 치수<표 1>를 대입하여 제도하였으며 제도 시 앞여밈분은 2.5cm, 라펠 꺾임점은 위가슴둘레선에서 3cm 내려온 지점으로 하였다. 테일러드 칼라를 제도한 후 칼라의 칼라달림선 길이를 [몸판의 목둘레선-0.5cm]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그 외에 몸판, 칼라너비, 칼라의 스텐드분, 라펠너비, 고지라인의 위치 등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제도와 칼라의 눙힘분만 달리하여(각각 2cm, 2.5cm, 3cm, 3.5cm, 4cm, 4.5cm) 실험복 재킷 6종류를 제도하였다.

2. 실험복 재킷의 제작

실험복 소재는 머슬린으로 하였으며, 칼라눙힘분만 달리하여 제도한 총 6종의 테일러드 칼라 실험복 재킷을 제작하였다. 실험복 재킷 제작 시, 실제 재킷 제작과 동일한 조건으로 의복이 늘어나거나 형태가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착심지 및 다테데이프를 부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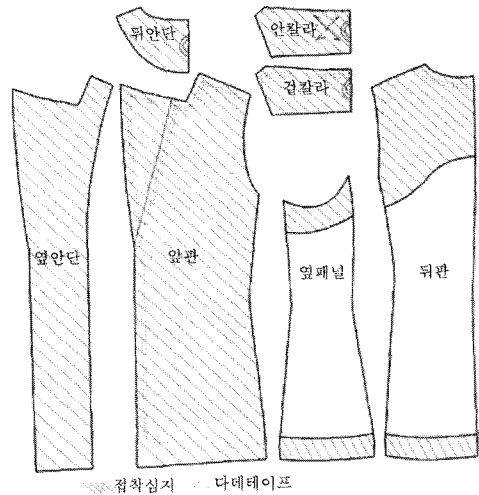
접착심지의 부착부위는 앞판 전체, 안단 전체, 옆패널의 암홀 부분, 뒤판의 암홀을 포함한 몸판 위부분, 안칼라, 걸칼라, 밑단 등이다. 또한 다테데이프를 어깨, 라펠외곽선, 앞자락 끝, 라펠 꺾임선(꺾임선에서 0.6cm 띄어서), 앞목, 뒤목, 걸칼라의 외곽선 등에 부착하였다. 실험복에 사용된 머슬린 및 접착심지의

물리적 특성은 <표 2>와 같으며 접착심지 및 다테데이프의 부착부위는 <그림 2>에 나타났다.

시접은 목둘레선과 암홀에 1cm, 옆선 및 어깨선에 1.5cm, 밑단에 4cm를 주었으며, 공업용 재봉틀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탐수 2.5로 박음질 한 후 기름솔로 시접처리하였다.

3. 패턴과 실험복 재킷의 칼라 및 라펠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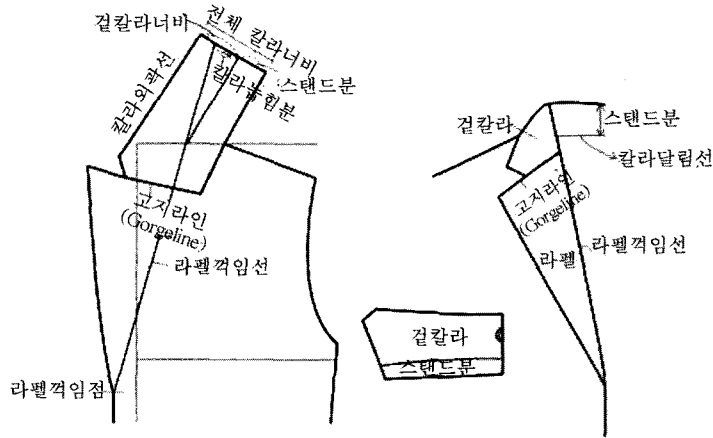
실험복 재킷은 피험자 각각의 체형차이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제도에 이용된 것과 동일한 8호 드레스폼에 실험복 재킷 6종류를 차례로 착의시켰으며 의복구성 전공 전문가 5인이 함께 토의 및 분석하여 칼라눙힘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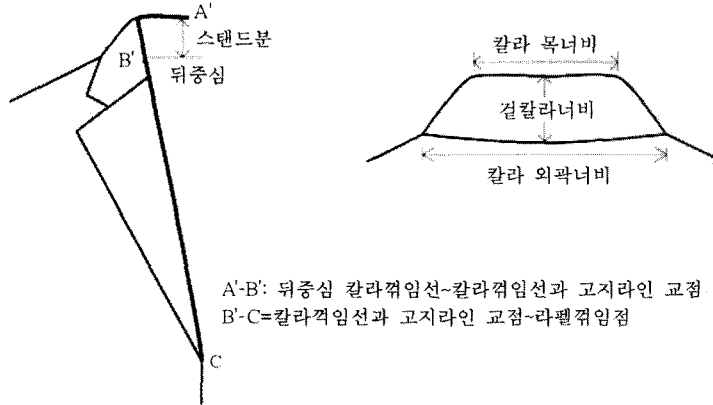
<그림 2> 접착심지 및 다테데이프의 부착부위

<표 2> 실험복 소재의 물리적 특성

원 단	물 성	조 직	혼용율 (%)	두께 (mm)	무게 (g/m <sup>2</sup> )	번 수(Ne's)		밀 도(올/5cm)		신 도		인장강도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경사	위사
머슬린	평 직	면 100	0.3	116.0	27.4	33.2	134.6	138.0	10.5	16.1	259.0	224.0	
접착심지	평 직	면 100	0.2	43.1	39.4	36.4	103.4	96.2	34.6	75.3	52.0	67.0	
다테데이프	평 직	면 100	0.2	0.6 (g/m전폭)	41.2	-	20.2 (전폭)	92.2	3.3	-	43.0 (전폭)	-	



<그림 3> 실험복 재킷 칼라의 각 부위별 명칭



<그림 4> 실험복 재킷의 측정부위

다른 실험복 재킷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한 각 부위별 명칭 및 측정부위는 <그림 3>-<그림 4>와 같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칼라의외곽선의 길이: 칼라눌림분에 따른 칼라의외곽선의 길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실험복 재킷의 칼라의외곽선 길이를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2) 겉칼라너비 및 스탠드분: 실험복 재킷의 겉칼라너비 및 스탠드분 측정 시 칼라의 꺾임선을 납작하게 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둔 채 줄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칼라눌림분 변화에 따른 뒤칼라의 퍼짐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 3) 칼라 및 라펠의 꺾임선: 각 실험복 재킷에 칼라 및 라펠의 꺾임선을 그려준 후, 꺾임선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꺾임선은 실험복 재킷을 착의시킨 채 칼라와 라펠을 납작하게 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둔 상태에서 뾰족한 연필을 사용하여 0.3cm 간격으로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실험복 재킷을 탈의시켜 편편하게 편 후 표시한 점을 연결하여 꺾임선을 그려주었으며 그려진 꺾임선을 따라 칼라꺾임선(A'~B') 및 라펠꺾임선(B'~C)의 길이를 각각 측정하였다.

- 4) 실험복 재킷 착용 시의 앞뒤 형상: 실험복 재킷을 차례로 착의시켜 칼라 및 라펠의 앞뒤 형상을 시각적으로 관찰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칼라의외곽선의 길이

칼라의외곽선의 길이는 칼라의 스탠드분과 겉칼라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본 연구결과, 패턴과 실험복 재킷의 칼라의외곽선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라눌림분 증가에 따라 모두 증가되었으나, 실험복 재

<표 3> 칼라눌힘분에 따른 칼라의외곽선 길이 비교

(단위: cm)

항 목	칼라눌힘분											
	2		2.5		3		3.5		4		4.5	
	패턴	재킷	패턴	재킷	패턴	재킷	패턴	재킷	패턴	재킷	패턴	재킷
칼라의외곽선 길이/2	14.71	14.51	15.18	14.85	15.50	15.30	16.01	15.60	16.40	16.00	16.70	16.46

<표 4> 칼라눌힘분에 따른 걸칼라너비 및 스텐드분의 비교

(단위: cm)

항 목	걸칼라너비				스텐드분	
	패턴		실험복		실험복	
칼라눌힘분	2	4.50	3.42		3.00	3.97
	2.5		3.55			3.85
	3		3.63			3.62
	3.5		3.72			3.50
	4		3.82			3.39
	4.5		3.90			3.22

킷의 칼라의외곽선이 패턴의 칼라의외곽선보다 0.2~0.3cm 정도 작게 나타났다. 실험복 소재의 부피, 시접, 측정 부위의 변화 및 기타 요인에 의해 패턴보다 실험복 재킷의 칼라의외곽선 길이가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 2. 걸칼라너비 및 스텐드분의 비교

패턴과 실제 실험복 재킷의 걸칼라너비 및 스텐드분을 비교한 결과, 서로 큰 차이점이 나타났다. 패턴 제도 시 걸칼라너비(4.5cm)와 스텐드분(3cm)을 칼라눌힘분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제도하였으나, 실험복 재킷에서는 <표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칼라눌힘분에 따라 걸칼라너비 및 스텐드분이 모두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실험복 재킷에서는 칼라눌힘분이 증가할수록 스텐드분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걸칼라너비가 넓어졌다. 이는 칼라눌힘분이 커질수록 외관으로 보이는 칼라의 뒤중심너비가 넓어진다는 연구결과(안화노, 2008)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걸칼라너비 및 스텐드분은 패턴 제도 시의 수치가 아닌 칼라눌힘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복 재킷의 걸칼라너비는 칼라눌힘분이 0.5cm 증가 할 때마다 평균 0.09cm씩 증가하였다. 칼라눌힘분이 4.5cm인 경우, 걸칼라너비가 3.90cm를 보여 실제 제도 시 걸칼라너비인 4.5cm와 0.6cm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스텐드분은 많아져 3.22cm를 보였다. 원하는 걸칼라너비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칼라눌힘분을 설정해야 하며, 적절한 칼라눌힘분 설정은 걸칼라너

비에 따라 변동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임자영(2005)은 칼라눌힘분을 [걸칼라너비-1.5cm]로 적용시켰으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걸칼라너비는 옷감 및 심지의 두께, 레질리언스 등의 영향을 받으며(김구영, 김여숙, 2008), 칼라의 꺾임이 부피감 있게 접혀지므로 좀 더 유동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칼라눌힘분에 따른 걸칼라너비 및 스텐드분의 변화가 칼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칼라 목너비와 칼라 외곽너비 등을 측정하였으며 칼라를 중첩시켜 뒤목 퍼짐 형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표 5>와 같이 칼라눌힘분이 증가함에 따라 칼라 목너비와 칼라 외곽너비가 모두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칼라눌힘분이 2cm인 것과 4.5cm인 것을 비교해 보면, 칼라 목너비와 칼라 외곽너비 모두 약 1.7cm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뒤칼라를 중첩시킨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칼라눌힘분 증가에 따라 칼라의 외곽선 형태가 점차 오목한 곡선적 형태에서 점차 직선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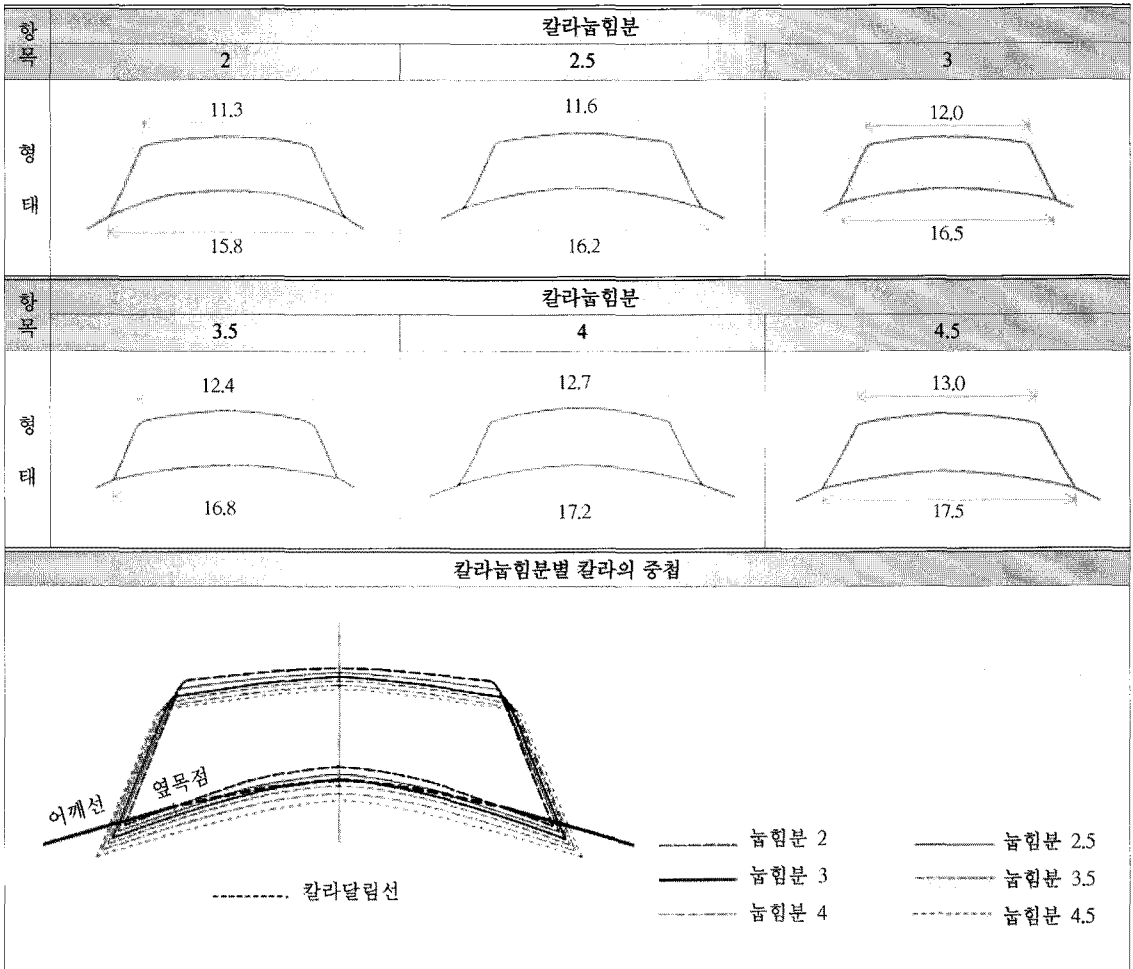
## 3. 칼라 및 라펠의 꺾임선

패턴과 실험복 재킷 모두 공통적으로 칼라눌힘분 증가에 따라 칼라 및 라펠꺾임선의 형태가 곡선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칼라꺾임선의 길이가 증가되었다.

칼라달림선의 형태는 칼라눌힘분의 증가에 따라 오목한 곡선으로 변형되었으며,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라눌힘분에 따라 실험복 재킷의 칼라꺾임선 및

<표 5> 칼라의 뒤목 퍼짐 형상

(단위: cm)



라펠귀임선의 위치가 변동되었다. 칼라눌힘분의 증가에 따라 칼라귀임선 및 라펠귀임선의 각도가 점차 시계방향으로 기울어졌으며 이에 따라 걸칼라와 라펠의 너비도 넓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칼라눌힘분의 증가에 따라 칼라귀임선 부분의 목둘레 여유량 또한 증가하였다. 여유분량은 주로 앞쪽보다는 옆쪽과 뒤쪽에 분포하였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라눌힘분이 2cm인 실험복 재킷에서는 목둘레 부분의 뒤와 옆에서 각진 형상이 나타났으며, 2.5cm인 경우에도 목둘레 부분이 부드럽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칼라눌힘분 3cm와 3.5cm에서는 칼라의 목둘레 부분이 전체적으로 모나지 않고 부드럽게 형성되었으며, 칼라눌힘분 4cm와 4.5cm에서는 목둘레 부분의 여유량이 많아져 약간의 각진 형상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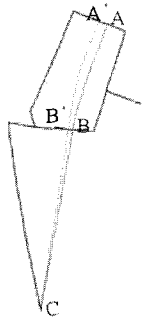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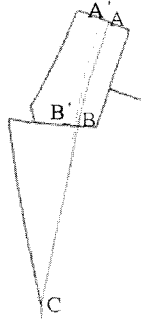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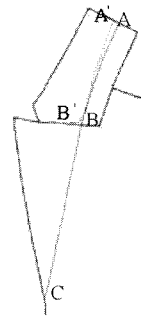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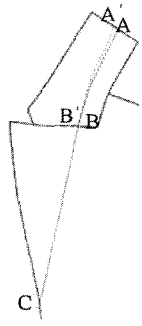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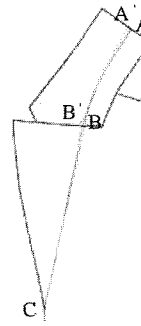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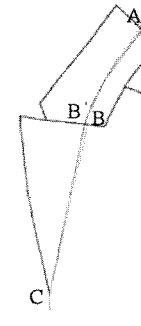
칼라 목둘레 부분의 각진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 칼라의 칼라달림선 길이를 0.5cm 작게 제도(김주영, 김여숙, 2008)하였으나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칼라달림선의 길이도 칼라눌힘분에 따라 변화해야 함을 알 수 있다.

4. 실험복 재킷 착용 시의 앞뒤 형상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칼라눌힘분에 따른 칼라의 형상 차이는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칼라눌힘분이 3cm인 것과 3.5cm인 것이 전체적으로 형상이 좋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장 적당한 칼라눌힘분을 2.5~3cm로 지정(임자영, 2005)한 연구나 4cm로 지정(안화노, 2008)한 연구와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라

<표 6> 칼라눌힘분에 따른 칼라 및 라펠의 꺾임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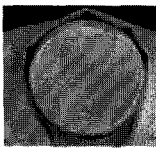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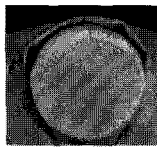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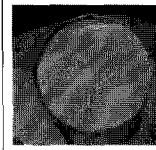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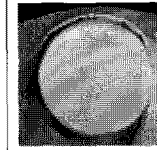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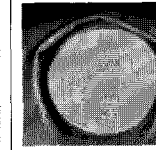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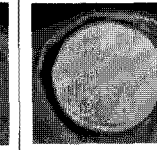
(단위: cm)

항목	칼라눌힘분		
	2	2.5	3
라펠 및 칼라의 꺾임선			
	A~B: 14.75 B~C: 21.30 A'~B': 14.80 B'~C: 21.07	A~B: 14.94 B~C: 21.30 A'~B': 14.98 B'~C: 21.10	A~B: 15.18 B~C: 21.30 A'~B': 15.00 B'~C: 21.20
	칼라눌힘분		
	3.5	4	4.5
			
	A~B: 15.29 B~C: 21.30 A'~B': 15.20 B'~C: 21.20	A~B: 15.40 B~C: 21.30 A'~B': 15.22 B'~C: 21.24	A~B: 15.60 B~C: 21.30 A'~B': 15.40 B'~C: 21.30

----- 실험복 재킷(A'-B'-C), ————— 패턴(A-B-C)

<표 7> 칼라눌힘분에 따른 목둘레 부분의 형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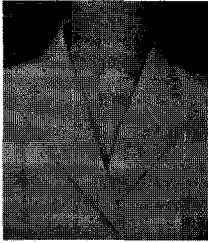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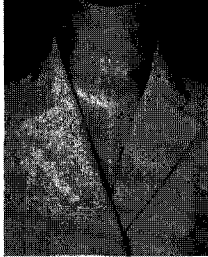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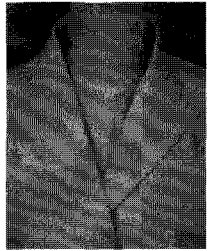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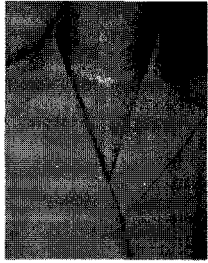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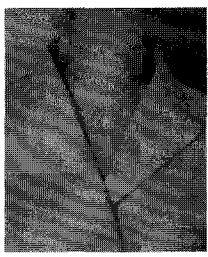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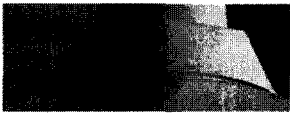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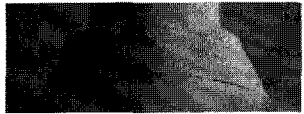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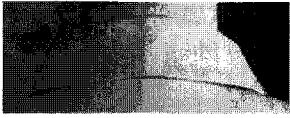


항목	칼라눌힘분					
	2	2.5	3	3.5	4	4.5
목둘레 형상						

펠꺾임점의 위치로 인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았을 때의 칼라 및 라펠의 형상은 칼라눌힘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모든 실험복 재킷에서 라펠꺾임선을 따라 라펠꺾임점까지

부피감 있게 꺾여 실제보다 라펠꺾임점이 올라가 보이는 형상을 보였다.  
칼라눌힘분이 2cm와 2.5cm인 실험복 재킷 칼라에서는 필요이상의 스텐드분이 생성되어 스텐드분이 높

&lt;표 8&gt; 실험복 재킷 착용 시 칼라 및 라펠의 앞뒤 형상

(단위: 명(%))

항목	칼라높힘분		
	2	2.5	3
앞			
	칼라높힘분		
	3.5	4	4.5
			
뒤	칼라높힘분		
	2	2.5	3
			
	칼라높힘분		
	3.5	4	4.5
			

아졌으며, 칼라높힘분 4cm와 4.5cm의 재킷에서는 칼라외곽선의 길이 증가로 인해 칼라 및 라펠이 몸판에서 들뜨는 현상이 나타났다. 칼라높힘분은 칼라뿐 아니라 라펠꺾임선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칼라높힘분 2cm와 2.5cm의 실험복 재킷에서는 라펠의 꺾임선이 실제 제도한 꺾임선보다 덜 꺾어져 라펠너비가 감소하였으며, 4cm와 4.5cm의 실험복 재킷에서는 라펠의

꺾임선이 몸판 쪽으로 더 꺾어져 라펠너비가 증가하였다. 칼라높힘분 2cm와 4.5cm의 실험복 재킷에서 라펠의 너비가 증감한 분량은 각각 약 0.3cm 정도로 라펠너비의 차이는 0.6cm 정도가 발생했다.

앞에서 보았을 때의 목둘레 여유분량은 주로 옆목 쪽에서 나타났는데, 칼라높힘분이 4cm 이상부터 많은 여유량을 보였다.



뒤에서 보았을 때의 칼라 형상에서는 칼라눌힘분에 따라 스텐드분 및 칼라의 퍼짐 형상에 차이를 보였다. 칼라눌힘분이 2cm인 것과 2.5cm인 실험복 재킷의 경우 칼라외곽선 길이의 부족으로 인하여 칼라가 당겨져 올라가 칼라의 스텐드분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뒤 칼라달림선의 솔기선이 노출되었다. 또한 칼라가 뒤목에서는 약간 밀착된 듯이 보였고 옆목에서는 여유가 뒤목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칼라눌힘분 3cm와 3.5cm의 실험복 재킷에서는 뒤칼라가 몸판에 적당히 안착되었으며 칼라달림선도 드러나지 않았다. 눌힘분 2.5cm인 실험복 재킷의 칼라에서는 옆목점에서 뒤중심쪽으로 2cm 정도까지는 칼라달림선이 보이지 않았으나, 뒤중심에서는 0.2cm 정도 칼라달림선이 드러났다. 칼라눌힘분이 4cm인 것과 4.5cm인 실험복 재킷에서는 칼라달림선이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칼라외곽선길이의 증가로 인해 뒤칼라 전체가 몸판에서 들뜨며 몸판에 자연스럽게 놓이지 않았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칼라눌힘분 변화에 따른 칼라 및 기타 관련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외관상으로 가장 좋은 칼라눌힘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테일러드 칼라 패턴 제작법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칼라눌힘분을 달리한 실험복 재킷 6종을 제작하여 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복 재킷 제도 시 여밈분은 2.5cm, 라펠견임점은 위가슴둘레선의 3cm 아래 지점으로, 칼라너비는 7.5cm로 하였으며, 칼라눌힘분을 달리하여(각각 2cm, 2.5cm, 3cm, 3.5cm, 4cm, 4.5cm) 칼라눌힘분에 따른 칼라 및 라펠의 형태 및 치수 변화를 제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복 재킷 착용 시 칼라 및 라펠의 형상이 가장 좋게 나타난 것은 칼라눌힘분이 3cm인 것과 3.5cm인 것이었다. 라펠견임선의 위치가 패턴과 같게 나타난 실험복은 칼라눌힘분이 3cm인 것과 3.5cm인 것이었다. 칼라눌힘분이 적은 경우(2cm, 2.5cm)에는, 칼라외곽선 길이가 짧아짐으로써 칼라의 스텐드분이 증가하여 걸 칼라너비가 작아졌으며 이에 따라 뒤칼라의 칼라달림선이 노출되었다. 또한 칼라 및 라펠이 당겨 올라가 칼라 및 라펠의 너비가 좁아졌다. 반면, 칼라눌힘분이 많은 경우(4cm, 4.5cm)에는 칼라외곽선 길이가 길어져 칼

라 및 라펠너비가 넓어졌으며 여유가 많아져 몸판에 잘 안착되지 못하였다.

2. 재킷 패턴과 실험복 재킷에서 칼라눌힘분이 증가함에 따라 칼라견임선 부분의 목둘레 여유가 증가하였다. 실험복 재킷 칼라눌힘분이 적거나(2cm, 2.5cm) 많은 경우(4cm, 4.5cm)에는 칼라견임선의 목부분이 부드럽지 못하고 각이 지며 모난 형상을 보였다. 이로써 칼라 목둘레 부분의 부드러운 형상은 목둘레 여유량의 많고 적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칼라눌힘분의 크기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칼라 제도 시 칼라견임선 부분의 목둘레가 부드럽게 형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칼라달림선의 길이를 몸판의 뒤목둘레보다 작게 제도(김구영, 김여숙, 2008; 신장희, 손희순, 2009)해야 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칼라달림선 길이를 [뒤목둘레-0.5cm]로 제도하였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칼라달림선의 길이뿐만 아니라 칼라눌힘분도 칼라견임선 부분의 목둘레 형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칼라눌힘분은 칼라외곽선 길이, 칼라 스텐드분, 칼라 및 라펠의 너비, 칼라견임선 부분의 목둘레 형상 등에 영향을 미쳤다.

본 실험복 재킷에서 가장 적당한 칼라눌힘분은 3cm와 3.5cm로 나타났으며, 2.5~3.5cm로 나온 연구결과(임자영, 2005)나, 4.3cm(안화노, 2008)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라펠견임점의 위치차이로 인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임자영(2005) 연구의 라펠견임점은 본 연구의 라펠견임점보다 0.2cm 아래점(앞목점에서 9cm 내려온 지점을 지나는 견임선과 앞여밈분의 교점)이며, 칼라너비 7cm, 스텐드분 2.5cm였다. 안화노(2008)는 라펠견임점 위치가 본 연구보다 10cm 내려온 점(옆목점에서 라펠견임선을 따라 37cm 지점)이었으며 칼라너비 7.2cm, 스텐드분 2cm였다. 본 연구는 라펠견임점 위치가 위가슴둘레선의 3cm 아래점, 칼라너비 7.5cm, 스텐드분 3cm로 한 실험복 재킷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므로, 라펠견임점 위치나 칼라너비, 스텐드분 등의 차이로 인해 이 같은 차이점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선행연구와의 공통점도 나타났는데, 칼라눌힘분 증가에 따라 걸칼라와 라펠의 너비가 넓어진 점이다. 이것은 “칼라눌힘분이 커지면 칼라 및 라펠견임선이 노출되면서 걸칼라의 너비와 라펠의 너비도 넓어진다”는 안화노(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제도 시 모두 걸칼라너비는 4.5cm, 스텐드분은 3cm로 동일하게 제도하였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걸칼라너비 및 스텐드분은 패턴 제도 시 설

정한 높이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칼라눌힘분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칼라눌힘분만 달리 하고 칼라너비와 스텐드분을 고정시켜 실험한 결과, 칼라눌힘분이 적을 경우 스텐드분이 많아져 칼라달림선의 솔기선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총 칼라너비가 같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아, 재킷 보정 시 칼라달림선의 솔기선이 보이는 경우에는 솔기선을 감추기 위해 칼라의 너비를 증가시킬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칼라눌힘분을 알맞게 증가시켜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걸칼라너비는 칼라외곽선 길이, 칼라눌힘분, 래펠귀임점의 위치, 원단의 부피나 디자인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원하는 디자인의 테일러드 칼라 제작을 위해서는 패턴 제도 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칼라눌힘분을 알맞게 설정하여 제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패턴과 실험복에 관한 구성적 측면에서의 적당한 칼라눌힘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테일러드 칼라의 너비와 기타 조건 등은 모두 동일하게 한 후, 칼라눌힘분만 달리하여 적절한 칼라눌힘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테일러드 칼라 재킷의 제도 시에는 통상 걸칼라너비 및 스텐드분에 따라 그에 알맞은 칼라눌힘분을 설정하므로, 본 연구와는 순서를 달리하여 칼라너비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칼라눌힘분을 설정하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테일러드 재킷의 인체 착용 시 칼라눌힘분에 따른 착용감이나 선호도에 관한 분석 등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재를 광목으로 하여 실험하였다. 적절한 칼라눌힘분은 래펠귀임점의 위치나 칼라너비, 스텐드분, 소재 및 기타 요소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디자인 및 기능에 따라 알맞은 칼라눌힘분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원단 두께, 스텐드분, 래펠귀임점 위치 등을 달리한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각각의 적절한 칼라눌힘분을 데이터화한 후 테일러드 재킷 제도 시 적극 활용될 수 있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강연경. (2009). 중국 성인여성용 테일러드 수트 패턴 개발

-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구영, 김여숙. (2008). 여성복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제작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6), 947-954.
- 김명옥. (2006). 신축성 직물 재킷의 안감 패턴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화. (2002). *비만여성을 위한 재킷 패턴 개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식. (2004). *20대 여성의 재킷 패턴 설계*.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효숙. (2000). *여성복 자켓 패턴 메이킹 II*. 서울: 경춘사.
- 류숙희, 박종희. (2004). 중년여성의 체형과 신체만족도에 따른 테일러드 재킷의 이미지 평가 및 선호도.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367-376.
- 배주형. (2006). *노년여성을 위한 재킷 패턴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신장희, 손희순. (2009). 테일러드 칼라의 생산업체용 패턴과 교육용 패턴의 비교 연구. *패션비즈니스*, 13(5), 37-44.
- 안화노. (2008). *테일러드 재킷의 칼라 패턴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성. (2007). *노년여성을 위한 재킷 패턴 개발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숙, 어미경, 서미아. (2006). 테일러드 재킷의 Marking 효율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4(2), 310-319.
- 이보나. (2005). *Tailored Collar의 패턴 제도법에 따른 시각적 이미지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수진. (2009). *노년여성의 체형에 따른 재킷 패턴 설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자영. (2005). 칼라귀임선, 눌림각도 변화에 따른 외곽치수 및 스텐드량 변화에 관한 연구. *패션비즈니스*, 9(2), 143-159.
- 장세은. (2007). *여성복 테일러드 재킷의 소재별 패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은정. (2004). *중년여성의 재킷 맞춤새 향상을 위한 그래픽 이팅 룰 값 연구*.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화연. (2010). 여성복 테일러드 칼라 패턴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4), 617-627.
- 조윤주, 백경자, 이정란. (2004). 여성 기성복 재킷의 치수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3), 347-356.
- 최창숙. (2008). *소재의 스트레치량에 따른 재킷 패턴 개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